

House in Savièse

Anako'architecture





The new family home is set on a site characterized by a relative ambiguity.

Although the plot suffers from a tight overlook with the neighboring detached villas, it also benefits from south-facing orientation on a gentle slope, which offers an unexpected overview on the alpine mountains and along the left bank of the Rhône river.

The project consents to its condition and affirms its radicalness seeking to free itself from the limitations of the site, by capturing and enhancing its intrinsic qualities.

Blind walls of raw concrete border the site and define the façade of the house which, like a fortress protects itself from any opening to, or direct relation with, neighboring properties. To the north, uphill of the plot, a hollow cover defines the main entrance next to the access road. The house appears as a monolithic volume that embraces gently dipping ground on a single level, articulating internal volume as an alignment of three interconnected half-levels separated by patios. These half-levels define the entry, night and day areas.

The project complies with its commitment to integration by recognizing and respecting the scale of the site. It rejects, however, any mimicry with neighboring buildings.

Paradoxically, the massive external appearance of the object contrasts with inner apertures that offer generous access to the external world. In the core of this concrete shell, the three patios allow daylight to flood white and pure internal spaces. These spaces act as interior gardens that invite the greenery and blue sky into the heart of the house, creating a feeling of transparency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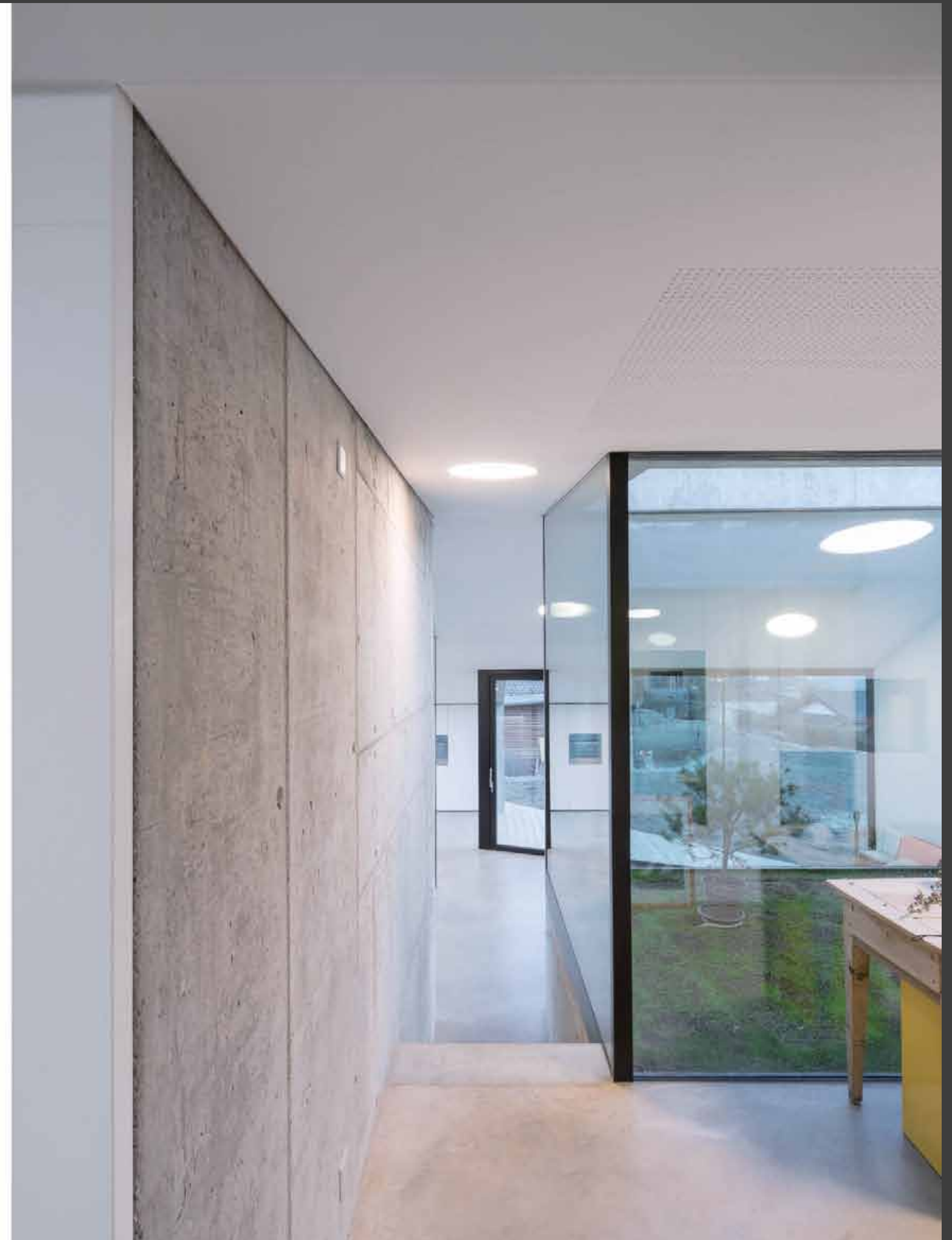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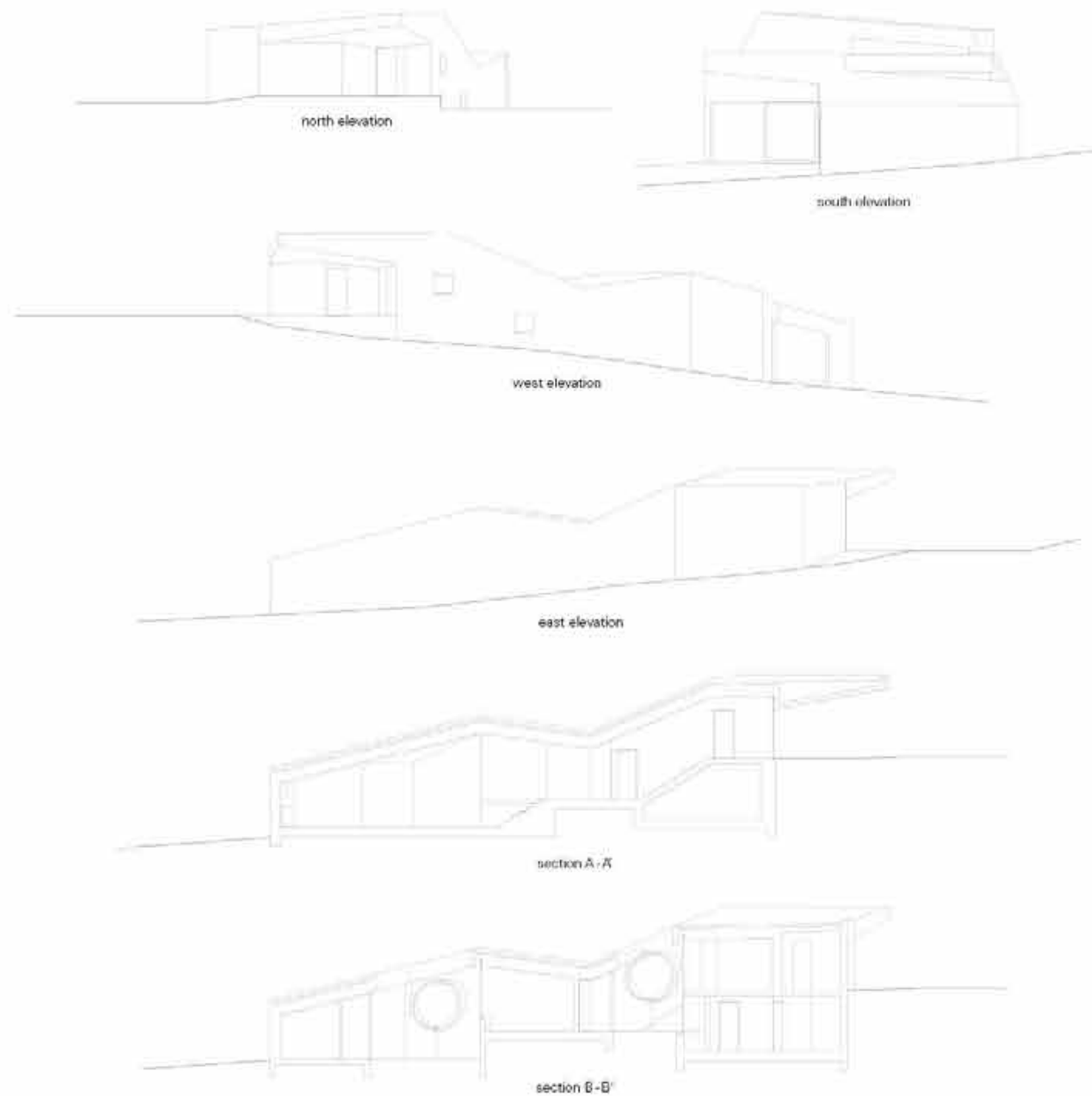
Concrete parapets of the patios are located between each half-level and precisely frame the outline of mountains in the sky. A gravel roof is dissected by the 3 patios and stands as a 5th facade that adopts and reinforces a free, cut-out geometry of the volume.

Walls of raw concrete were shaped by metallic formwork with worn and heavily damaged wooden skin lining. This gives unexpected and unique reliefs and textures on the surfac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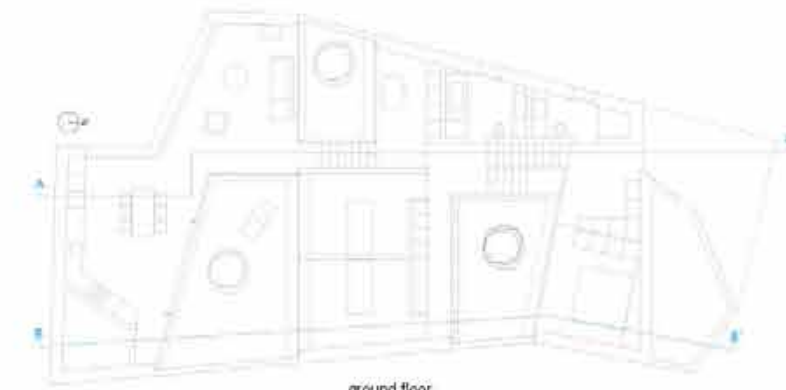
the concrete; each formwork removal was a genuine moment of discovery.

Random assembly of formwork of various sizes combined with minimal vibration of the concrete revealing gravel nests, give the surface random reliefs and patterns that express multiple colours and shades through the day and s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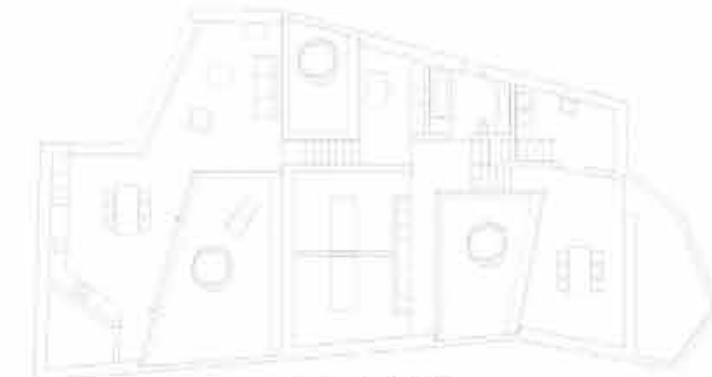
Concrete is structure, material, space, shadow and light. It materializes the radicalness of the architectural concept.







ground floor



first floor below ground

싸비에스 주택

스위스 싸비에스에 한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들어섰다. 땅은 일반적인 부지와는 조금 다르다. 사방으로 시야가 트여있어 살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완만한 경사지 위에 놓이면서 남향의 장점을 살린다. 집은 주위로 알프스 산맥의 전경이 내다보이고 왼편에는 지중해로 흐르는 론 강의 둑이 이어져 자연 속에 파묻힌 듯하다.

부지의 특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가는 부지의 한계로부터 과격적으로 탈피할 방법을 고민했다. 장소가 가진 고유한 자질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가공되지 않은 콘크리트 벽은 집의 경계이자 명확한 형태가 된다. 주변의 어떠한 위험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내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인다. 북쪽 높은 지대 위, 도로에 인접한 쪽에는 콘크리트 땅어리 속으로 움푹 들어간 출입구가 있다. 침을 지키는 요새 같기도 거대한 덩어리 같기도 한 집은 뚫은 낮추어 땅을 끌어안은 듯한 자세를 취한다. 내부는 실내 정원을 집집 삼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세 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높이가 모호한 중간층의 공간들은 출입구이자 빛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지트가 된다.

집은 장소의 규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통합한다. 바깥세상과

연결된 통로가 지나는 실내는 거대한 외부 형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내부에는 세 개의 실내 정원이 곳곳에 차지하여 하얗고 깨끗한 내부 공간에 빛을 들인다. 푸른 하늘과 녹음을 그대로 옮겨 놓아 집 안에서도 언제나 자연을 느낀다. 전면 유리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를 무시고 투명함으로 가득 채운다.

경사지의 가장자리, 즉, 높은 곳과 낮은 곳은 중간층 양옆으로 자리한다. 가장자리 벽은 반듯한 액자가 되어 바깥 산의 능선과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가득 담는다. 실내 정원이 있는 곳을 따라 곳곳이 비워진 자갈 지붕은, 건물의 다섯 번째 축면이 된다. 자유롭게 깎여 있어 기하학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금속 거푸집의 안쪽에는 심하게 손상된 나무껍질을 붙여, 다듬어지지 않은 듯 거친 표면에 독특한 양각의 무늬와 질감을 새긴 콘크리트 벽이 탄생했다. 콘크리트 배합 시 진동을 최소화해 자갈 덩어리를 고무 만들지 않은 채로 거푸집에 부었다. 이는 표면 곳곳에 입체적인 무늬와 독특한 패턴을 입히는데 시시시할 대체로운 색감과 그늘을 표현한다. 뿐만 아니라, 부재위로 조립한 다양한 크기의 거푸집 형태가 벽면에 남아 특별함을 더한다. 콘크리트는 구조물이자, 소재이며, 공간이고 빛인 동시에 그늘이 된다.



